

‘포호요이스 미스터리’ 언제 풀 건가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북한과 무슨 일을 해본 사람이면 모두 아는 경험적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뒀돈’으로 4억5000만달러가 넘어간 것이 시작이다. 당시 정부 인사들은 “1달러도 안 줬다”고 했지만, 증거가 드러나 고소소에 갔다. 그 시절 대북 사업을 하려고 방북한 남측 기업인들은 ‘사업 담보비’ 명목으로 1만~5만달러를 내야 했다. 한때 우리 언론사들이 방북 경쟁을 벌이면서 뒀돈을 겨역 지불한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약속이 북에 준 선물이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서해 경제특구 건설 등에 합의했는데 이행하려면 최소 수조원이 필요했다.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도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공연까지 전부 대가를 챙기는 것이 북한이다. 그런데 2018년 남북 쇼와 비핵화 사

극은 이상한 정황이 넘쳐나는데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포호요이스(pohjois) 미스터리’가 대표적이다. 포호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직후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pohjois’와 파일명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 공무원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pohjois’와 ‘북원추’ 파일을 몰래 삭제한 뒤 이유를 추궁받

北 공짜로는 아무것도 안 해
문 정부의 ‘북쪽 원전 추진’
한강 하구 해도·이스타機...
넘치는 의혹들 왜 안 밝히나

자 ‘신(神)이 내려서’라고 답했다. ‘핀란드신이 강림하지 않고서야 아무도 모를 pohjois를 파일명으로 썼느냐’는 말이 나왔다. 뭔가를 숨기려 한 것이다.

‘pohjois’에는 북 신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송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그 무렵 김정은이 ‘건설 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원전)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장이 근무한 적이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이례적

로 ‘원자력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정부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했다. 그 래놓고 뒤로는 북에 핵무기 원료 생산이 가능한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당시 문 정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어떤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문서로 작성하고 감사가 임박하자 몰래 지우기까지 했다.

2018년 3월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갈 때 문 정부가 떠온 전세기가 이스타 항공이었다. 이스타 창업주가 문 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이었다. 당시 전세기에서 ‘무엇’을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2019년 1월 문 정부는 ‘한강 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겨줬는데 현재 3급 기밀로 지정돼 있다. 최근 북 주민이 걸어서 귀순해 온 강화도 일대 수심과 수초 등이 담겼다. 유사시 남침 안내도가 될 수 있는 지도를 넘긴 것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북 적폐’부터 청산하리라 기대한 국민이 많았다. 중국에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사드 3불(不)’을 약속해 준 경위도 아직 미궁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적 행위’ 의혹을 밝히려는 모습이 안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교체 배경으로 ‘외부 안보 위협’을 언급했다. ‘내부 위협’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2023]

강진 황칠갈낙탕

“여보, 오늘 거기서 점심 먹을까요. 어머니도 한 그릇 사다 드리고요.” 아내가 말하는 ‘거기’는 칠팔월이면 두어 차례 찾는 곳이다. 주말도 아니지만 마지막 북달임을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이 많다. 강진만에 있는 황칠갈낙탕 전문 식당이다. 전국에 갈낙탕을 내놓는 집은 많지만, 이곳을 주목한 것은 믿음이다. 직접 황칠나무를 가꾼다는 점과 주변의 좋은 나치를 이용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느 겨울이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강진만을 찾은 철새를 보려고 방문했을 때다. 주문을 받던 직원이 “겨울 나치는 냉동을 사용합니다. 나치 철이 아니라 생나치를 이용하는 것과 다릅니다”라고 했다. 물론 강진, 장흥, 해남 등 남도의 섬과 갯벌에서 잡은 나치이지만 냉동 나치라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

에 단골이 되었다. 지금껏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곳을 보지 못했다.

황칠나무는 두릅나뭇과 상록교목이다. 나무에 상처를 내서 얻은 황칠은 이름이 말해주듯 금칠을 할 때 사용하는 천연 도료다. 황칠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라며 귀한 대접을 받았다. 특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등 전라남도 서남해에서 해풍을 받으며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으뜸으로 꼽았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왕실은 물론 중국에서도 우리 황칠을 원했다. 심지어 ‘신라칠’이라며 조공을 강요하기도 했다.

강진으로 유배된 다산 정약옹은 ‘황칠’이라는 시에서 “황칠공남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은 약목이라며 황칠나무를 도끼로 찍었다”고 했다. 또 놀랍게도 “공납을 면제해 주자 신기하게 씩이났



다”고 노래했다. 황칠나무 순은 장아찌로, 잎은 차로 먹는다. 또 진액을 만들어 음식과 음료에 이용하기도 한다.

강진 나치는 어떤가. 강진만 신전면 사초리는 나치잡이로 유명한 마을이다. 나치 철이면 마을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한 마을에서 나치만으로도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강진 마량항은 등락만과 다도해 섬과 갯벌에서 잡은 나치가 모이는 곳이다. 또 한우는 강진과 인근 장흥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남도의 땅과 바다와 숲에서 내준 귀한 보물로 차려진 음식이 황칠갈낙탕이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권하는 북달임 음식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에 기용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내정했다.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안보실장을 평균 9개월마다 바꾼 것은 지나치게 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미·일의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장관은 4년 넘게 재임 중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실장들의 평균 임기(2년 6개월)와 비교해도 너무 짧다.

올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교 이벤트는 미국 대선일 것이다.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선 이후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보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윤 대통령이 작년 말 미국통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교한 대미 외교가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미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안보실장을 느닷없이 외교관(장호진)에서 군인(신원식)으로 교체했

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수방 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 국방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경력이지만 각종 논란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야권에선 그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처장 시절 경호처는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아 ‘과잉 경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말에도 발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 이 실장을 신설한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며 “정책 조율의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던 게 무색해졌다. 그리고는 총선에서 패하자 이 실장을 다시 넉 달 만에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 시기와 내용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집값 급등을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 주택 대출 조이기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7월 이후 가산 금리를 수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가량 인상했다. 그 결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저 금리는 연 3% 후반, 최고 금리는 연 6%대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코픽스 금리) 하락세와 정반대 행보다. 은행들도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택 대출 조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은행 주택 대출 금리 인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 금리와 달리 은행 예금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세가 반영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조기가 은행의 예대 마진을

더 키워 은행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20조773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 결과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조352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정부의 대출 조기는 결국 은행 이익을 더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은행들은 2022년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덕에 연간 50조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은행들은 손쉽게 번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 여론이 따기위지면서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고, 정치권에선 은행에 환채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발 대출 금리 인상이 이번에도 은행만 배 불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 폭만큼 예금 금리도 올려 수익을 고객과 나누거나,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 대출 고객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꼼수’ 멤버도 입조심 안 하면 된서리 맞는 ‘李 유일 체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 담 여리인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내부를 갈라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대 초반에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면서 2위로 밀렸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정 후보가) 이전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들과 개팔은 ‘명팔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 후보와 경쟁하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개팔’ 들은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 이후 그에 대한 집단적 비판에 나섰다. 개팔들은 “정봉주가 민명 체제에 선전포고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주 후보는 “누가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는가. 앞과 뒤가 다른 자가 진짜 이재명을 파는 자”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그는 “제가 이전 대표를 겨누는 화살을 기필코 모두 부러뜨리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나는 동지들 뒤에서 칼을 찌지 않는다” “앞으로 이재명을 더 팔겠다”며 경쟁적으로 정 후보 비판에 나섰다.

정 후보는 김어준·김용민씨와 함께 ‘나꼼수’ 원년 멤버로 야권에서 두꺼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선 초반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하며 지도부 입성이 확실했지만 이전 대표가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자유분방한 언변을 무기 삼아 야권 내에서 독보적인 발언권을 행사해 온 ‘나꼼수’ 마저 ‘이재명 유일 체제’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된서리를 맞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나꼼수 멤버였던 김어준 역시 “정봉주는 한 가지 설화로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개팔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다른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는 “정봉주는 발언을 취소하라”며 나꼼수 내부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현재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으며 당대표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고, 최고위원 역시 이전 대표가 공개 지지한 후보들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 확실하다. 당 강령에는 개팔들을 위한 ‘더 강한 민주주의’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재명 유일 체제’의 민주당에선 민주주의가 숨 쉴 공간이 없다.

8월15일은 전국 76주년 기념일

윤석열 대통령, 이종찬 類 [대한민국 지우기] 저의 무시하라

(이종찬 광복회)의 [좌우합작] 노림수는 무엇? | 김구·김규식,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노선] 배척 | 그들 등 돌린 2년 2개월 뒤, 김일성 남침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8월 13일 게재 되었습니다.



▲ 1948년 4월 평양(남북연석회의). 김구와 홍명희, 김일성이 나란히 앉았다. 이미 (인공기)를 만들어 놓은 [평양것들]. 이들은 이때는 (태극기)를 내세우며 남한 좌우합작파 인사들을 속여 먹었다. 이 회의 2년 2개월 후, 저들은 (인공기) 흔들며 남쪽으로 쳐내려왔다.

다만 [법통 계승]의 뜻풀이로는,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있다. 그중 한 관점은 이렇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정통성]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에서 [적법성]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15

그렇다면 [정신 계승] 아닌 [실체 건국]은 언제였나? 1948년 8월 15일이라 했다.

- ※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식)
- ※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식)
-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건국 50주년 기념사업)
- ※ 2003~2007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라고 한 구절.

이 모두가 [1948년 8.15 건국을 기정사실로] 쳤다는 것이다.

왜 이리 집요하게 [대한민국] 지우려 하는가

그러나 필자가 정작 주목하는 바는 이런 법률적 문제보다는, [1948년의 대한민국을 적대한 [좌익 + 중간파]의 끝날 줄 모르는 [대한민국 지우기] 집념이다.

극좌는 독립운동 당시도 3.1운동을 [민족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격하했다. 그들은 공산당 계급혁명만이 옳다고 우겼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8.15 해방공간에서도 남로당은 이승만·김구 두 민족지도자를 [반동]이라고 매도했다. 그런데 이승만·김구 두 분이 분열했다. 비통한 일이었다.

김구·김규식 두 분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했다. 2년 2개월 후 김일성은 남침했다

남한 중간파 지도자들은 북으로 끌려가 수용소에 갇혀 북한통일 방식에 협조할 것을 강요받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종찬 광복회, 대한민국 흔들기 그쳐라

그로부터 30년.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극좌 NL 운동권이 야당의 실세가 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 [그 태어남의 정당성] [국가적 지위] 자체를 아예 지우려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1948년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대했던 [민족주의] 계열을 또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물론!

※ [이종찬 광복회]는 이 [합작]으로 또 갈 것인가? 마오쩌둥과 합작하다 장제스는 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